투데이 EBS
갈래별 정리
<강사 : 유대종>

<고전A>

A1

(1)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房(방) 안에 켜 있는 燭(촉)불 누구와 離別(이별)하였건대,
겉으로 눈물 지고 속타는 쥴 모르는고.
우리도 저 燭(촉)불 같아서 속타는 쥴 모르는도다

1. '촛불'은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는 소재로 기능하고 있다.(o,x)
2. 화자의 대상의 동일시를 통해 특정한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o,x)
3.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o,x)
4. 의인화된 화자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o,x)

● **전문 풀이 :**

방안에 켜 있는(놓은) 촛불은 누구와 이별을 하였기에,
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타 들어가는 줄을 모르는가.
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슬피 눈물만 흘릴 뿐) 속이 타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 **구조 분석**

초장 : 임(단종)과의 이별
중장 : 별한(別恨)
종장 : 속이 타는 듯한 한(恨)

● **해설**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되자, 단종과의 이별을 촛불에 이입시켜 그 슬픔을 노래한 시조이다. 초장과 중장은 인과 관계로 연결되었으며, 종장은 주제장으로 지은이의 감정이 이입된 구절이다.

(2) 바람 서리 섞어친 날에

風霜(풍상)이 섞어친 날의 갓 피온 黃菊花(황국화)를
金盆(금분)에 가득 담아 玉堂(옥당)의 보내오니
桃李(도리)야 꽃인 척 마라 님의 뜻을 알겠구나

1. '풍상'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형상화하는 시어이다.(o,x)
2. '황국화'는 쟁반에 담겨 작품 전체의 주제를 환기하는 중요한 사물로 드러나고 있다.(O,X)
3. '도리'와 '국화'의 유사성이 주제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O,X)
4. 화자가 보낸 황국화는 풍상을 이겨낸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O,X)

● **전문 풀이**

바람과 서리가 뒤섞이어 내린 날에 이제 막 핀 노란 국화를
좋은 화분에 가득 담아 홍문관에 보내시니,
복사꽃이나 오얏꽃아 너희들은 (따뜻한 봄날에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니) 꽃인 체도 하지 마라. (서릿발 을 이겨가며 피는 국화꽃을 보내신) 임금님의 뜻을 알겠구나.

● **해설 및 감상**

이 시조의 제목은 '자상특사황국옥당가(自上特賜黃菊玉堂歌)'인데 흔히 줄여서 옥당가(玉堂歌)라고도 한다. 이 시조에서 근간(根幹)이 되는 단어는 도리(桃李)와 황국화(黃菊花)다. 복숭아꽃과 오얏꽃은 따뜻한 봄날에 잠깐 피었다가 져버리는 꽃으로 예로부터 흔히 변절자(變節者)들을 상징하고, 국화는 사군자(四君子) 가운데 하나로서 차가운 겨울 서릿발 같은 추위를 이겨가며 피는 꽃으로 매화(梅花)와 더불어 지조(志操)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꽃이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흔히 고시조에서 즐겨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시조는 국화와 같이 절개를 지키는 신하가 되어달라는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도리(桃李)와 같이 변절하는 일이 없이 충성된 절개를 지키겠노라는 작자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핵심 정리**

◁ 작자 : 송순(宋純 ; 1493~1583)
◁ 출전 : <진본 청구영언>
◁ 종류 : 평시조
◁ 성격 : 연군가
◁ 제재 : 도리, 황국
◁ 주제 :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3) 국화야 너는 어찌

국화야 너는 어찌 三月春風(삼월 춘풍) 다 보내고
落木寒天(낙목 한천)에 너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傲霜孤節(오상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1.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밀

감을 조성하고 있다.(o,x)
2. '한천'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속성으로 충만한 세계를 의미한다.(o,x)
3. '한천'을 이겨내고 핀 '국화'에 화자는 예찬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o,x)
4. 자연물을 통해 물아일체의 흥취를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o,x)

● **전문 풀이**

국화야 너는 어찌 (만물을 생동케 하는) 봄이 다 지난 뒤, 나뭇잎이 지고 추워진 계절에 홀로 피었느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찬 서리를 이겨내는 높은 절개를 지닌 것은 너밖에 없는 것 같구나.

● **해설 및 감상**

내노라 하고 뭇꽃들이 경염(競艶)을 하는 봄이 지나고, 찬 서리가 내릴 때 홀로 피어 그 향기를 흩부리는 국화는, 마치 역경 속에서 꿋꿋이 자신의 지조를 지켜 나가는 군자(君子)의 품이 있기 때문에, 옛부터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 온 꽃이었다. 이 시조에서는 그런 국화를 의인화해서 그 절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 "지조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그렇기에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强度)를 살피려 한다. 이런 지조는 선비의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지조와 정조는 다같이 절개에 속한다. 지조는 정신적인 것이요, 정조는 육체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지조의 변절도 육체 생활의 이욕(利慾)에 매수된 것이요, 정조의 부정도 정신의 쾌락에 대한 방종에서 비롯된다.
>
> 사실 지조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자기의 신념에 어긋날 때면 목숨을 걸어 항거하여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의 세력 앞에는 최저의 생활, 최악의 인욕(困辱)을 무릅쓸 각오가 없으면 섣불리 지조를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일찌기 어떤 선비도 변절하여 권력에 영합해서 들어갔다가 더러운 물을 뒤집어쓰지 않고 깨끗이 물러나온 예를 역사상에서 보지 못했다. 이렇듯 변절의 생리는 최후가 비참하고 처량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조지훈 , 지조론(志操論)>

절조보다는 사리(私利)에 눈이 어두워 선비 정신을 헐값에 팔아버린 못난 위정자들을 볼 적마다 작자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그는 이 작품에서 재차 지조 있는 선비로서 소신대로, 바르게 살고 싶은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조에서의 '오상 고절(傲霜孤節)'은 바로 작자 자신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핵심 정리**

◁ 작자 : 이정보
◁ 출전 : <병와가곡집>
◁ 종류 : 평시조
◁ 성격 : 절의가
◁ 제재 : 국화
◁ 주제 : 高節(고절)

(4) 오륜가

(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씀을 들으려므나
이 말씀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씀 잊지 않고 배우고야 말 것이니라. <제1수>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모님 아니시면 내 몸이 없었으리라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끝이 없으리로다. <제2수>

종과 주인을 누구가 만드셨나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먼저 아나니
한 마음에 두 뜻 없이 속이지나 맙시다. <제3수>

지아비 밭 갈러 간 데 밥 광주리 이고 가서
밥상을 들되 눈썹에 맞추는구나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손님이나 다르실까 <제4수>

[A]형님 잡수신 젖을 내 따라 먹습니다.
어허 저 아우야 어머님 너 사랑이야
형제가 불화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공경치 않으면 어디가 다를까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말 것이니라. <제6수>

(나)
청천에 떠 있는 기러기 한 쌍 한양성대에
잠깐 들려 쉬어가렴
[B]여기서 저기로 갈 때 내 소식 님에게 전하고 저기서 여기로 올 때 님 소식 내게 부디 들러서 전해주렴
우리도 님 보러 바쁘게 가는 길이니 전할

동 말동 하구나
- 작자 미상 -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1수에 등장하는 이 '말솜(말씀)'이 2수부터 6수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② (가)의 1수에 등장하는 화자에 따르면, ㉢과 같은 사람이 만약 ㉠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1수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③ (나)에서 기러기는 임을 보러 가는 길로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기러기는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다.
④ (가)의 [A]는 (나)의 [B]와 달리 시적 화자를 달리하여 극적인 효과를 더하고 있다.
⑤ (가)의 2수와 (나)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9. (가)와 <보기>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이 두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임금과 백성 사이는 하늘과 땅인 바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아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라고 좋은 미나리를 혼자 어찌 먹으리 <2수>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 보자
누구의 손에 태어났길래 모습조차 같은가
한 어미 젖을 먹고 자라났으니 딴 마음을 먹지 마라 <3수>

① (가)의 3수에 등장하는 자연물들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잘 아는 대상들로, <보기>의 2수에 등장하는 화자 역시 이러한 관계를 잘 알고 있겠군.
② (가)의 3수에 등장하는 '누구'는 <보기>의 2수에 등장하는 '우리'와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하겠군.
③ (가)의 5수에 '형님 잡수신 젖을 내 따라 먹는' 행위는 <보기>의 3수의 설명과도 같이 '한 어미'에게서 태어난 것과 관련이 있겠군.
④ <보기>의 2수는 (가)의 4수와 마찬가지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군.
⑤ <보기>의 3수에 등장하는 '딴 마음'은 (가)의 5수에 등장하는 '불화'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시어이겠군.

● 전문 풀이

[1]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삼강오륜의 말)을 들으려므나,
이 말씀이 아니면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것이니,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배우고야 말 것입니다.
[2]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나를 기르시니
부모님이 아니셨더라면 이 몸이 없었을 것이다.
이 덕을 갚고자 하니 하늘같이 끝이 없구나.
[3] 종과 상전의 구별을 누가 만들어 내었던가
벌과 개미들이 이 뜻을 먼저 아는구나.
한 마음에 두 뜻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속이지나 마십시오.
[4] 남편이 밭 갈러 간 곳에 밥 담은 광주리를 이고 가서,
밥상을 들여 오되 (지아비의) 눈썹 높이까지 공손히 들어 바칩니다.
(남편은) 진실로 고마우신 분이시니 (삼가고 조심해야 할) 손님을 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5] 늙은이는 부모님과 같고, 어른은 형과 같으니,
이와 같은데 공손하지 않으면 (짐승과) 어디가 다른 것인가.
나로서는 (노인과 어른들을) 맞이하게 되면 절하고야 말 것입니다.

● 해설 및 감상

이상의 5수(首)의 시조는 유교 사상(儒敎思想)을 노래하여 무척 유교적 이념이 강하게 드러난 교훈적이고도 도덕적인 설교가 많은 일명(一名) 오륜가(五倫歌)라 하는 것들이다.

[1] 오륜가의 서시(序詩)로서 삼강 오륜(三綱五倫)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앞으로 전개될 시조들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2] 오륜의 부자유친(父子有親)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초장에서 부생모육지은(父生母育之恩)을 노래하고 종장에서 부모의 은혜가 끝이 없음을 노래하여 훗날 정철의 '훈민가(訓民歌)'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3] 오륜의 군신유의(君臣有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작품에서의 '종'은 '백성'을, '상전'은 '임금'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곧 군신(君臣)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것인 바 이것은 마치 벌이나 개미가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충성을 다해 일함과 같은 것으로 보아, 신하는 임금에 대해 두 마음을 가지는 일이 없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4] 오륜에서 부부 유별(夫婦有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정성과 공경스런 마음으로 언제나 손님 대하듯 하라는 교훈성이 깃든 시조다. 중국 후한(後漢) 때 양홍(梁鴻)과 그의 처 맹광(孟光) 사이의 거안제미(擧案齊眉 : 상을 들되 눈썹과 가지런히 되게 높여 든다)라는 고사를 인용하여 남편 섬기는 도리를 얘기하고 있다.
[5] 오륜의 장유유서(長幼有序)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웃어른을 부모와 형같이 공손하게 모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주세붕 이외에 박인로, 김상용 등의 오륜가가 있으나 이것들은 모두 문학적인 맛은 거의 없고 단지 유교적인 교훈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라 할 수 있겠다.

● 핵심 정리

◁ 작자 : 주세붕
◁ 출전 : <武陵續集(무릉속집)>
◁ 종류 : 연시조
◁ 성격 : 교훈가
◁ 제재 : 오륜(五倫)
◁ 주제 : 삼강 오륜

A2

(1) 까마귀 싸우는 골에

까마귀 싸우는 골에 白鷺(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 빛을 새올새라.
淸江(청강)에 좋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1. '까마귀'는 '백로'와 색채 대비가 되며 동시에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 되는 시어이다.(o,x)
2. 청강에 몸을 씻었으나 여전히 백로를 시기하는 까마귀의 모습을 화자가 비판하고 있다.(o,x)
3. 대비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o,x)
4. 명령형 어투를 사용하여 권계의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o,x)

● **전문 풀이**

겉은 까마귀 같은 간신, 소인배들이 모여 다투는 곳에 백로 같이 순결하고 강직한 자들은 가지 말아라.

성이 난 까마귀들이 새하얀 너의 몸빛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할 것이니

청강에서 기껏 깨끗이 씻은 너의 결백한 심신(心身)이 더럽혀질까 걱정이 되는구나.

● **해설 및 감상**

당시 이성계 일파와 그의 아들 방원은 기울어져 가는 고려 왕조를 폐하고 새로운 조선 건국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려의 유신(遺臣)들을 회유, 포섭하였다.

정몽주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래를 염려하여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 시조를 지은 것이라고도 하며, 아들이 이방원이 초대한 연회에 나가려 하자 이를 경계하여 지은 것이라고도 한다. 까마귀, 백로 등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극단적인 암유로써 묘사했으며, '청강(淸江)'이라는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자식의 장래를 염려하는 모정(母情)과 나라의 현실을 개탄하는 소극적, 여성적 인생관이 엿보인다.

● **핵심 정리**

◁ 작자 : 정몽주의 어머니
◁ 출전 : <가곡원류>
◁ 종류 : 평시조
◁ 제재 : 백로
◁ 주제 : 아들의 장래를 염려하는 모정(母情)

(2) 일신이 살자 하였더니

一身(일신)이 사쟈한이 물것 계워 못견딜쐬.
皮(피)ㅅ겨갓튼 갈랑니 보리알갓튼 슈통니 줄인니 갓깐니 잔벼록 굴근벼록 강벼록 倭(왜)벼록 긔는 놈 뛰는 놈에 琵琶(비파)갓튼 빈대 삭기 使令(사령)갓튼 등에아비 갈따귀 샴의약이 셴 박희 눌은 박희 바금이 거절이 불이 뾰족한 목의 달리 기다한 목의 야왼 목의 살진 목의 글임애 뾰록이 晝夜(주야)로 뷘 때 업시 물건이 쏘건이 빨건이 뜻건이 甚(심)한唐(당)빌리 예셔 얼여왜라.
그 中(중)에 참아 못견딜손 六月(유월) 伏(복)더위예 쉬파린가 하노라.

<현대어 풀이>

이 몸이 살자 하니 무는 것이 많아 견디지 못하겠구나.

피의 껍질 같은 작은 이, 보리알 같이 크고 살찐 이, 굶주린 이, 막 알에서 깨어난 이, 작은 벼룩, 굵은 벼룩, 강벼룩, 왜벼룩, 기는 놈, 뛰는 놈에 비파 같이 넓적한 빈대 새끼, 사령(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같은 큰 등에 각다귀(모기의 일종), 사마귀(버마재비), 하얀 바퀴벌레, 누런 바퀴벌레, 바구미, 고자리, 부리가 뾰족한 모기, 다리가 기다란 모기, 야윈 모기, 살찐 모기, 그리마(절족 동물), 뾰록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물기도 하고 쏘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뜯기도 하는 것이 당비루(피부병의 일종)보다 더 심하고 고약하구나.

그 중에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은 오뉴월 복더위에 쉬파리인가 하노라.

1.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O,X)
2. 당비루를 만들어 내는 대상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확신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O,X)
3, 답답한 화자의 심정을 열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O,X)
4.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O,X)

(3) 한 눈 멀고 한 다리 저는

한 눈 멀고 한 다리 저는 두터비 서리 맞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안자,
건넌산 바ᄅᆞ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쩍 뛰다가 두엄 아래 도로 자빠지겄구나.
모쳐라 날랜 낼싀만정 어혈질 번하괘라.

<현대어 풀이>두꺼비가 파리한 마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올라 앉아서,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날랜 흰 송골매 한 마리가 떠 있으므로 가슴이 섬뜩하여지고 철렁 내려앉아 펄적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로 나자빠졌구나.
다행스럽게도 몸이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동작이 둔한 놈이었다면 다쳐서 몸에 멍이 들 뻔하였구나.

1, 한 눈 멀고 한 다리 저는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O,X)
2. 종장에서, 시점을 변화하여 입체감을 드러내고 있다.(O,X)
3. 대상을 희화화하여 골계적인 미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O,X)
4. 백송골은 파리를 괴롭히는 존재로 두꺼비에게 두려움의 존재이다.(o,x)

● **전문 풀이**

두꺼비가 파리한 마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올라 앉아서,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날랜 흰 송골매 한 마리가 떠 있으므로 가슴이 섬뜩하여지고 철렁 내려앉아 펄적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로 나자빠졌구나.
다행스럽게도 몸이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동작이 둔한 놈이었다면 다쳐서 몸에 멍이 들 뻔하였다.

● **해설**

두꺼비를 의인화하여 약육 강식(弱肉强食)을 풍자한 사설시조로서, 백성을 못살게 굴던 양반들이 한족(漢族)이나 왜인(倭人), 북방 후진 민족 등 강대국의 침략에 직면하면 여지없이 굴복하고 마는 비굴한 태도를 그렸다.

● **감상**

이 노래의 내용은 둔한 자가 실수를 하고도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우스광스러운 모습을 풍자한 것이다. 못난이도 자기 스스로는 잘나고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믿고 사는 인간 심리의 취약점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를 동물에 의탁하여 당시 사회상을 풍자한 것이라고 본다면, 약한 서민(庶民)에게는 강한 체 뽐내며 못살게 굴지마는 강한 외세(백송골)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비굴한 양반(두꺼비)을 풍자한 것이거나, 또는 약자를 잡아 먹는 강자 위에는 그를 잡아먹는 더 강한 자가 있다는 사회상을 희화적(戱畵的)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그만큼 이 작품은 우의적(寓意的)이고 풍자적이며, 희화적이면서도 평면적이다. 구성면에서는 종장이 골자이고, 초장과 중장은 종장의 관념을 구상화한 것이며, 노둔한 두꺼비에 사나운 백송골을 맞세운 것은 대조법이다.

● **핵심 정리**

◁ 작자 : 미상(未詳)
◁ 출전 : <청구영언>
◁ 종류 : 사설 시조, 풍자시
◁ 제재 : 두꺼비
◁ 주제 : 약자에게는 강한 체 뽐내고, 강자 앞에서는 비굴한 양반 계층 풍자

A3
(1) 산촌에 눈이오니

山村(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세라
柴扉(시비)를 여지 마라 날 찾을 이 뉘 있으리
밤중만 一片明月(일편 명월)이 게 벗인가 하노라

1. '시비를 열지 않는' 것은 속세와의 단절의 이미지를 환기한다.(o,X)
2. '일편 명월'은 화자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시어이다.(o,x)
3. '눈'은 화자로 하여금 속세를 생각나도록 환기하는 시어이다.(o,x)
4. '산촌'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장소로 현재 그곳에 가지 못하는 부정적 상황이 바탕에 깔려 있다.(o,x)

● **전문 풀이**

산골 마을에 눈이 내리니 돌길이 묻혔구나!
사립문을 열지 마라. (길이 막혔으니 구태여 이 산 속에) 나를 찾아올 손님이 누가 있겠느냐?
다만 밤중에 찾아드는 한 조각 밝은 달만이 내 벗인가 싶구나.

● **해설**

이 시조는 작자가 영창대군(金言大君)과 김제남(金像男) 등을 제거한 계축화옥(癸丑禍獄)에 연루되어 고향인 김포에 물러가 있다가 춘천에 유배되어 있을 때의 고독한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 **감상**

자연 안에서 집의 문을 열지 않아도 달이 벗으로 찾아온다는 한가한 정서가 잘 드러나 일명 한정가(閑情歌)라 불리는 작품이다. 서구의 낭만주의와는 달리 이백(李白)을 대표로 하는 동양의 낭만주의는 지저분한 현실을 초월하여 위에서나 밖에서 현실을 굽어보거나 내려다보는 것으로, 현실에서 도피하여 산수에 낙(樂)을 붙인 시와, 술과 시, 음악으로 낙을 삼는 시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작품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양적 낭만 주의의 시가 아닌가 한다.

'시비(柴扉)'는 '세상과 통하는 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문마저 굳게 닫아버리고 일편 명월과 살고자 선비의 고고한 정신 세계가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 **핵심 정리**

◁ 작자 : 신흠(1566~1628)
◁ 출전 : <진본 청구영언>
◁ 종류 : 평시조
◁ 성격 : 한정가(閑情歌)
◁ 제재 : 한 밤의 산골 마을
◁ 주제 : 안빈낙도(安貧樂道)

(2) 말 없는 청산이요

말 업슨 靑山(청산)이요 態(태) 업슨 流水(유수)ㅣ로다
갑 업슨 淸風(청풍)이요 임ᄌᆞ 업슨 明月(명월)이로다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늙으리라

1. 반복과 대구를 활용하여 분별하는 삶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o,x)
2. '말', '태'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o,x)
3. 대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o,x)
4. 자연의 속성을 세속과 대조하여 예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o,x)

● **전문 풀이**

말없이 푸르기만 한 것은 청산(靑山)이요, 모양 없이 흐르기만 한 것은 유수(流水)로다.

값 없는 것은 바람이요, 주인 없는 것은 밝은 달빛이라.

이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사는 병 없는 이 몸은 걱정 없이 늙으리라.

● **해설**

'말 업슨 - 태 업슨, 청산(靑山)-유수(流水), 갑 업슨 - 님ᄌᆞ 업슨, 淸風 - 명월(明月)'의 대구적 표현의미는 자연 친애(自然親愛)의 사상이 담겨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경쾌감을 느끼게 한다. 종장의 '분별(分別) 업시 늙으리라'는 이 노래의 핵심어이다. 靑山과 流水의 대구는 자연의 영원함을, 淸風과 明月의 대구는 무한한 자연의 향수를 노래하여 주객 일체(主客一體)의 상황에서 세속적인 근심 따위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늙어가겠다는 달관을 노래하였다.

● **감상**

무언 청산(無言靑山)과 무태 유수(無態流水)를 벗하여 욕심으로 청풍 명월(淸風明月)을 즐기며, 세상의 속된 욕심으로 근심할 것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심정이 엿보인다. 논어의 '知者樂水 仁者樂山; 슬기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한다.)'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다.

● **핵심 정리**

◁ 작자 : 성혼(1535~1598)
◁ 출전 : <화원악보 >
◁ 종류 : 평시조
◁ 성격 : 풍류적, 전원적, 달관적
◁ 제재 : 청산, 유수, 청풍, 명월
◁ 주제 : 자연을 벗삼는 즐거움

(3) 오우가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친구**가 몇인가 하고 생각하니 물과 돌, 소나무와 대나무 로구나.
동산에 **달**이 떠오르니 그 또한 반가운 친구로다.
두어라 이 다섯 외에 친구가 더 있어서 무엇하리.

구름 빛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검어지는 것이 잦고
바람 소리가 맑다고 하지만 그칠 적이 많은데,
물은 맑고 깨끗하면서도 그칠 때가 없도다.

꽃은 무슨 일로 피자마자 바로 시들어 떨어지며
풀은 어찌하여 푸르자마자 누렇게 되느냐?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날씨가 따뜻해지면 꽃이 피고 추워지면 잎이 떨어지거늘
소나무야 너는 어찌하여 눈이나 서리가 내려도 변함이 없느냐.
깊은 땅 속까지 뿌리가 곧게 뻗은 것을 그것으로 인하여 알 겠노라.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면서
곧은 것은 누가 시킨 것이며 속은 어이 비어 있느냐
그러면서도 일 년 내내 푸르니 나는 대나무를 좋아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의 밝은 빛이 너만한 이가 있겠느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보고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으니 내 친구가 될만하다.

- 윤선도, 「오우가」 -

1.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① 윗글은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
② 윗글은 의문형 어투를 통해 강조의 효과를 주고 있다.
③ <보기>는 애상적 정서를 담담한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는 윗글에 비해 대상의 내면적 갈등이 잘 나타나 있다.
⑤ 윗글은 <보기>와 달리 자연물을 활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오우가」의 작가 윤선도는 당쟁에 휩쓸려 귀양을 갔는데, 정치와 당파 싸움에 대해서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것을 지겨워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유배지에서 보내며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의 시 속에서 은근한 세속에 대한 비판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화자가 사람이 아니라 자연물에 가치를 부여한 것은 작가가 지닌 세속 정치에 대한 환멸과도 관련이 있겠군.
② '달'의 덕성을 침묵이라고 판단한 것은 당쟁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군.
③ 화자는 '꽃'과 '풀'을 통해 일관성이 없는 현실을 부각하고 싶었던 것 같군.
④ '구름'과 '바람'은 자연 속에 거하는 시인의 대상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사물들이군.
⑤ 변함없거나 과묵한 덕성을 지닌 자연물을 그의 '친구'로 삼았다는 것은 작가 역시 당파 싸움을 일삼는 속세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표현일 수 있겠군.

● 전문 풀이

[1] 나의 벗이 몇이나 있느냐 헤아려 보니 물과 돌과 소나무, 대나무다.
게다가 동쪽 산에 달이 밝게 떠오르니 그것은 더욱 반가운 일이로구나.
그만 두자, 이 다섯 가지면 그만이지 이 밖에 다른 것이 더 있은들 무엇하겠는가?

[2] 구름의 빛깔이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가 맑게 들려 좋기는 하나, 그칠 때가 많도다.
깨끗하고도 끊어질 적이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3] 꽃은 무슨 까닭에 피자마자 곧 져 버리고,
풀은 또 어찌하여 푸르러지자 곧 누른 빛을 띠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4] 따뜻해지면 꽃이 피고, 날씨가 추우면 나무의 잎은 떨어지는데,
소나무여, 너는 어찌하여 눈이 오나 서리가 내리나 변함이 없는가?
그것으로 미루어 깊은 땅 속까지 뿌리가 곧게 뻗쳐 있음을 알겠노라.

[5]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곧게 자라기는 누가 그리 시켰으며,
또 속은 어이하여 비어 있는가?
저리하고도 네 계절에 늘 푸르니, 나는 그것을 좋아하노라.

[6]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다 바추니
한밤중에 광명이 너보다 더한 것이 또 있겠느냐?(없다)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 나의 벗인가 하노라

● 해설

작자가 56세 때 해남 금쇄동(金鎖洞)에 은거할 무렵에 지은 《산중신곡(山中新曲)》 속에 들어 있는 6수의 시조로, 수(水)·석(石)·송(松)·죽(竹)·월(月)을 다섯 벗으로 삼아 서시(序詩) 다음에 각각 그 자연물들의 특질을 들어 자신의 자연애(自然愛)와 관조를 표백하였다. 이는 고산 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것으로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어 시조를 절묘한 경지로 이끈 백미편(白眉篇)이다.

● 감상

[1] '오우가(五友歌)'의 서시로서, 초, 중장은 문답식으로 다섯 벗을 나열하였다. 자연과 벗이 된 청초하고 순결한 자연관을 고유어의 조탁으로 잘 표현하였다 '또 더ᄒᆞ야 머엇ᄒᆞ리'에서 작자의 동양적 체관(諦觀)을 발견할 수 있다.

[2] '오우가(五友歌)' 중 물의 영원성을 기린 노래이다. 구름과 바람은 가변적(可變的)이요 순간적(瞬間的)이라 한다면, 물은 영구적(永久的)이다. 물은 구름이나 바람과 달리 깨끗하고 항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산이 좋아하는 자연이 되고 있다.

[3] '오우가(五友歌)' 중 바위의 변하지 않는 생명성을 찬양한 노래이다. 꽃이나 풀이 가변적이고 세속적이라 한다면, 바위는 영구적이요 철학적이다. 꽃이나 풀이 부귀 영화의 상징이라면, 바위는 초연(超然)하고 달관한 군자의 모습이다.

[4] '오우가(五友歌)' 중 소나무의 변함없는 푸름에서 꿋꿋한 절개를 느껴 찬양한 노래이다. 소나무는 역경에서도 불변하는 충신 열사(烈士)의 상징으로 여긴다. 여기에서도 절의의 상으로서의 소나무를 칭송하면서, 자신의 강직한 고

절(高節)을 나타내었다.

[5] '오우가(五友歌)' 중 대나무의 푸름을 찬양하여, 아울러 그가 상징하는 절개를 나타낸 것이다. 대나무는 사군자(四君子)의 하나로 옛 선비들의 굳은 절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사랑을 받아온 것이다.

● **핵심 정리**

◁ 작자 : 윤선도(尹善道:1587~1671)
◁ 출전 : 고산유고 중 산중신곡
◁ 종류 : 연시조
◁ 성격 : 찬미적
◁ 제재 : 水·石·松·竹·月
◁ 주제 : 오우(五友)인 水·石·松·竹·月을 기림

(4) 어부사시사

춘사(春詞) 4

우ᄂᆞᆫ 거시 벅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숩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말가ᄒᆞᆫ ⓓ기픈 소희 온갇 고기 뛰노ᄂᆞ다

夏詞(하사) 2

년닙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쟝만 마라
닫 드러라 닫 드러라
靑청蒻약苧립은 써 잇노라. 綠녹蓑사衣의 가져오냐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無무心심한 白백鷗구ᄂᆞᆫ 내 좃ᄂᆞᆫ가 제 좃ᄂᆞᆫ가

秋詞(추사) 1

物믈外외예 조ᄒᆞᆫ 일이 漁어父부 生생涯애 아니러냐
ᄇᆡ 떠라 ᄇᆡ 떠라
漁어翁옹을 옫디 마라. 그림마다 그렷더라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四ᄉᆞ時시興흥이 ᄒᆞᆫ가지나 秋츄江강이 읃듬이라

冬詞(동사) 4

간밤의 눈 갠 後후에 景경物믈이 달랃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ᄂᆞᆫ 萬만頃경琉류璃리 ᄃᆡ희ᄂᆞᆫ 千쳔疊텹玉옥山산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仙션界계ㄴ가 佛블界계ㄴ가 人인間간이 아니로다

1. 대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O,X)
2. 각 장 뒤에 후렴구를 삽입하여 흥취있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O,X)
3.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O,X)
4.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하여 생생함을 부여하고 있다.(O,X)
5. '인간'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O,X)
6. '물외'는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로 화자는 이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O,X)

(춘4)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노를저어라, 노를저어라.
(배가 쏜살같이 나아가니)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한다.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
맑고도 깊은 소에서 온갖 고기가 뛰논다.

(하2) 연 잎에 밥을 싸 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닻을 들어라, 닻을 들어라.>
대삿갓을 쓰고 있다. 도롱이를 가져 왔느냐?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무심한 갈매기는 내가 저를 따르는가? 제가 나를 따르는가?

(추1)
[1] 속세를 벗어난 데서 깨끗한 일로 소일함이 고기잡이의 생환이 아니더냐.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라. >
늙은 고기잡이라고 웃지를 말라, 그림마다 어옹이 그려져 있더라.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네 계절의 흥이 한가지로 비슷하나 그 중에서도 가을철의 강물이 자아내는 흥이 으뜸이라.

(동4)
[4] 간 밤에 눈 갠 뒤에 경치가 달라졌구나!
<배 저어라, 배 저어라.>
앞 체는 유리처럼 잔잔한 넓은 바다, 뒤에는 겹겹이 둘러싸인 백옥 같은 산이로다.
<찌그덩 찌그덩 어야차!>
아, 여기는 신선이 사는 선경인가? 부처가 사는 정토인가? 인간 속세는 아니로다.

(5) 귀거래 귀거래 하되

귀거래(歸去來)귀거래 하되 말뿐이오 갈 이 없네
전원(田園)이 장무(將蕪)하니 아니 가고 어찌할꼬
초당(草堂)에 청풍명월(淸風明月)이 나명들 명 기다리노니.

돌아갈 것이라고 (말들은) 하되, 말뿐이오 갈 사람이 없네
전원이 황폐해져가니 (전원에) 아니 가고 어찌할 것인가
초당에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나면서 들면서 (나를) 기다리나니.

1. 귀거래를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담겨 있다.(O,X)
2.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O,X)
3. 주객전도의 표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O,X)
4. '장무'는 화자가 전원에서 바라는 삶의 모습이 형상화된 상태를 의미한다.(O,X)

(6) 강호에 기약을 두고

강호에 기약을 두고 십년을 분주 하니
그 모른 백구는 더디 온다 하려니와
성은이 지중하시매 갚고 가려 하노라.

1.'기약'은 '성은'을 베푸는 대상과 맺은 언약이겠군.(o,x)
2.'백구'는 '강호'에 머무는 화자의 행동을 비판하겠군.(o,x)
3.'분주한 십년'이라는 용어는 '강호'를 위해 일했던 화자의 삶을 짐작하게 하는 용어로군.(o,x)

A4

(1) 마음이 어리석은 후니

ᄆᆞ음이 어린 後(후)ㅣ니 ᄒᆞᄂᆞᆫ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만중 운산)에 어늬님 오리마ᄂᆞᆫ,
지ᄂᆞᆫ 닙 부ᄂᆞᆫ ᄇᆞ람에 행혀 긘가 ᄒᆞ노라.

● 전문 풀이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마다 모두 어리석다.
겹겹이 구름 낀 산중이니 임이 올 리 없건마는
떨어지는 잎과 부는 바람 소리에도 행여나 임인가 하고 생각한다.

1.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o,x)
2. 임에 대한 원망과 자책의 심정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다.(o,x)
3. '바람'은 시적 화자가 예기치 못한 이별로 인해 겪는 시련을 상징하는 소재이다.(o,x)
4. '만중운산'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단절감을 조성하기도 한다.(o,x)
5.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확신의 어조를 보이고 있다.(o,x)

● **해설**

초장은 겸손을 나타낸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종장의 내용을 두고 한 말이다. 종장은 도학자 이전의, 인간 본연의 순수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부는 바람에 지는 잎을 도치시켜 표현함으로써 운율을 조성하고 안타깝게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냈다.

● **감상**

지은이가 황진이를 대상으로 지은 시라고 한다. 스스로 마음이 어리석다고 낮추고 있지만 누를 수 없는 그리움과 안타까움, 기다림의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은이가 당대의 도학자라서 더욱 각별한 느낌을 자아낸다.

● **핵심 정리**

◁ 작자 : 서경덕(徐慶德 ; 1489 ~ 1546)
◁ 출전 : <해동가요>
◁ 종류 : 평시조
◁ 성격 : 감상적, 낭만적, 회한 연정가
◁ 제재 : 기다림
◁ 주제 : 임을 기다리는 마음

(2) 내 언제 무신하여

ᄂᆡ 언제 무신(無信)하여 님을 언ᄌᆡ 속엿관ᄃᆡ
월침(月枕) 삼경(三更)에 온 ᄯᅳᆺ지 전혀 업ᄂᆡ
추풍(秋風)에 지는 닙 소ᄅᆡ야 ᄂᆡ들 어이 ᄒᆞ리오.

● 전문 풀이

내가 언제 신의가 없어서 임을 한 번이라도 속였기에,

달마저 기울어진 한밤중이 되도록 아직도 찾아올 듯한 기척이 전혀 없네.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 (임의 기척인 줄 속게 되는) 내 마음인들 어찌하리오.

1. 임에 대한 원망이 은연중에 드러나 있다.(o,x)
2. 영탄적 어조를 통해 희망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o,x)
3.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와 함께 오는 임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o,x)
4. 임을 속여서 헤어졌지만 그럼에도 용서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o,x)

● 전문 풀이

내가 언제 신의가 없어서 임을 한 번이라도 속였기에,

달마저 기울어진 한밤중이 되도록 아직도 찾아올 듯한 기척이 전혀 없네.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 (임의 기척인 줄 속게 되는) 내 마음인들 어찌하리오.

● 해설

초, 중장은 임에 대한 원망인 동시에 자탄(自歎)의 소리이며, 종장에서 일어나는 환각적(幻覺的)인 정한은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절정이다.

● 감상

내가 언제 한번이라도 임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지 않았기에, 임은 전혀 찾아올 듯한 기미가 없다는 말인가? 기녀(妓女)이기에 갖는 임에 대한 정한, 원망과 자탄의 소리, 밤새워 잠 못 이루는 상사(想思)의 염(念)은 가슴 저미게 저려온다.

● 핵심 정리

◁ 작자 : 황진이(선조 때)
◁ 종류 : 평시조
◁ 성격 : 연정가, 애련(愛戀)의 노래
◁ 출전 : <병와가곡집>
◁ 제재 : 연모(戀慕)의 정(情)
◁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

(3) 사랑이 거짓말이

사랑이 거즛말이 님 날 사랑 거즛말이
ᄭᅮᆷ에 와 뵈단 말이 긔 더욱 거즛말이

날갓치 좀 아니 오면 어늬 ᄭᅮᆷ에 뵈리오

● 전문 풀이

임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꿈에 보인다는 말은 더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이로다!

나처럼 애가 타서 잠이 오지 않으면 어느 꿈에 보인다는 말인가?

1. 현재 화자는 꿈 속에서 임을 보고 있어 내적 갈등이 심해져 있는 상황이다.(o,x)
2. 잠은 꿈을 꾸기 위한 필요조건인데, 이 잠조차 잘 수 없는 상황은 그만큼 임에 대한 절절함을 드러내는 것이다.(o,x)
3. 내가 임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거짓임이 화자의 발화 속에 드러나고 있다.(o,x)
4.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o,x)

● 전문 풀이

임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꿈에 보인다는 말은 더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이로다!

나처럼 애가 타서 잠이 오지 않으면 어느 꿈에 보인다는 말인가?

● 해설 및 감상

우리 시조의 명사 가운데 제일 많이 오르내리는 어휘가 바로 '임'이란 말로, 403회나 등장하고 있다. 자연조차도 종국(終局)에는 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니, 가히 시조는 '님의 노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고 깨는 것, 먹고 입는 것, 춘하추동의 계절처럼 시간이 흐르는 것, 그 모든 의미의 정점에는 바로 이 '임'이 있다. 그러므로 이 '임'을 제거하면 모든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의 변주곡들로 나타난 세칭 연군가(戀君歌)에서의 '임'은 '임금'일 것이요, 기녀(妓女)들에의 임은 그 애인일 것이요, 보통 사람들의 임은 그들의 동경하는 이성(異性)을 말하는 것이다. '임'이란 말 앞에서는 선비도, 기녀도, 우부(愚夫)도, 신분이나 성별(性別)에 관계없이 같은 노래를 읊을 수가 있다. 이 시조는 종장에 가서 '임 없이 어떻게 잠을 이룰 수 있는가' 하고 원망 섞인 푸념으로 임 그리운 정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이어령, 정병욱 저, 古典의 바다)

● 핵심 정리

◁ 작자 : 김상용(金尙容 ; 1561~1637)
◁ 출전 : <병와가곡집>
◁ 종류 : 평시조
◁ 성격 : 연정가(戀情歌)
◁ 제재 : 사랑
◁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

(4) 설월이 만찬한데

설월이 만창한데 바람아 부지 마라
예리성 아닌 줄을 분명하게 알건마는
그립고 아쉬운 때면 행여 그인가 하노라

1. '바람'은 임과 헤어졌을 당시를 환기하게 하는 소재이다.(o,x)
2. '바람'은 마치 '예리성'으로 들리면서, 임으로 하여금 시적 화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소재이다.(o,x)
3.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o,x)
4. 성찰을 통해 시적 화자 자신의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다.(o,x)

● **전문 풀이**

눈 위에 비치는 달빛이 창문에 가득한데, 바람아 불지를 말아라.

다가오는 임의 발소리가 아닌 줄을 똑똑히 알지마는,

그립고 아쉬운 때면 (그 바람 소리가) 행여 임의 발자국 소린가 하여 마음 졸이노라.

● **해설**

초장은 임을 그리는 정을 더욱더 간절하게 유발하는 배경 구실을 하며, 중장과 종장에서 바람 소리를 임의 발자국 소리로 착각한다고 하는 환각(幻覺)의 표현은, 서술조가 아닌 내면의 감정 표현으로 매우 높은 표현 기교를 보여 주는 구절이지만, 이러한 발상은 당시 흔히 사용되어 온 것이다.

● **감 상**

임을 기다리는 여인에게 밤은 고통의 지새움이다. 흰 눈빛을 받아 더욱 밝은 달빛이 창문에 가득한데, 바람은 어인 일로 분다는 말인가? 임의 발자국 소리가 아닌 줄은 너무나 환하게 아는 일이건만, 그래도 귀를 기울이는 심정은 그리움에 응어리진 마음 때문이리라. 지극한 연모의 정을 보여 주는 이 노래는 더욱 간절한 느낌을 자아내게 한다. 안타까운 심정이 잘 묘사되었다. 曳履聲(예리성)은 신을 끌며 다가오는 소리를 뜻함.

● **핵심 정리**

◁ 작자 : 무명씨
◁ 출전 : <청구영언>
◁ 종류 : 평시조
◁ 성격 : 연정가, 애련(愛戀)의 노래
◁ 제재 : 예리성
◁ 주제 : 임을 기다리는 마음

(5) 정석가 - a형은 현대어 풀이!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난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난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하신 님믈 여해아와지이다

옥으로 연고즐 사교이다
옥으로 연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희 접주하요이다
그 고지 삼동이 퓌거시아
그 고지 삼동이 퓌거시아
유덕하신 님 여해아와지이다

므쇠로 텰릭을 말아 나난
므쇠로 텰릭을 말아 나난
쳘사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하신 님 여해아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쳘수산에 노호이다
그 쇼ㅣ 쳘초를 머거아
그 쇼ㅣ 쳘초를 머거아
유덕하신 님 여해아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예 디신달
구스리 바회예 디신달
긴힛단 그츠리잇가
즈믄 해랄 외오곰 녀신달
즈믄 해랄 외오곰 녀신달
신잇단 그츠리잇가

<현대어 풀이>
바삭바삭하는 가는 모래 벼랑에
바삭바삭하는 가는 모래 벼랑에
군밤 닷 되를 심습니다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나야만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나야만
덕있는 님을 여의게 해 주십시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그 꽃을) 바위 위에 꽂아 봅니다.
그 꽃이 석 동이 피어야만
그 꽃이 석 동이 피어야만
덕있는 님을 여의게 해 주십시오.

무쇠로 옷을 말라
무쇠로 옷을 말라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야만
그 옷이 다 헐어야만
덕있는 님을 여의게 해 주십시오.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철수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철초를 먹어야만
그 소가 철초를 먹어야만
덕있는 님을 여의게 해 주십시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리이까.
천 년을 외로이 사신들
천 년을 외로이 사신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1. 믿음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의문형 진술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o,x)

2. 역설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시적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o,x)

3. 윗글과 <보기>는 모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o,x)

> 나무토막으로 당닭을 깎아 만들어
> 벽의 걸이개를 올려 앉히고
> 이 닭이 꼬끼요 하고 때를 알리면
> 어머님 얼굴이 서산에 기우는 해처럼 늙으시리라.

4. '바위'는 사랑의 위기 속에서도 단단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한다.(o,x)

A5
(1) 규원가

엇그제 저멋더니 ᄒᆞ마 어이 다 늘거니, 少年行樂(소년행락) 생각ᄒᆞ니 일러도 속절업다.
늘거야 서른 말ᄉᆞᆷ ᄒᆞ자니 목이 멘다.

> 엊그제 젊었더니 어찌 벌써 이렇게 다 늙어버렸는가? 어릴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야 헛되구나. 이렇게 늙은 뒤에 설운 사연 말하자니 목이 멘다. - 서러운 회포를 적는 감회

父生母育(부생모육) 辛苦(신고)ᄒᆞ야 이 내 몸 길러 낼 제, 公侯配匹(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君子好逑(군자호구) 願ᄒᆞ더니, 三生(삼생)의 怨業(원업)이오 月下(월하)의 緣分(연분)ᄋᆞ로, 長安遊俠(장안유협) 경박자를 ᄆᆞᆷ ᄀᆞᆫ치 만나 잇서, 當時(당시)의 用心(용심)ᄒᆞ기 살어름 디듸는 듯,

> 부모님이 낳아 기르며 몹시 고생하여 이 내 몸 길러낼 때,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은 바라지 못할지라도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랬더니,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요, 부부의 인연으로(불교의 윤회 사상) 장안의 호탕하면서도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시집간 뒤에 남편 시중들면서 조심하기를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 하였다. (결혼을 운명으로 여기고 힘든 시집살이를 견딤→ 당시 여성의 위상 짐작)
> ☞ 과거(젊은 시절) 회상

三五 二八 겨오 지나 天然麗質(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골 이 態度(태도)로 百年期約(백년기약)ᄒᆞ얏더니, 年光(연광)이 훌훌ᄒᆞ고 造物(조물)이 多猜(다시)ᄒᆞ야, 봄바람 가을 믈이 뵈오리 북 지나듯 雪鬢花顔(설빈화안) 어ᄃᆡ 두고 面目可憎(면목가증) 되거고나. 내 얼골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괼소냐. 스스로 慙愧(참괴)ᄒᆞ니 누구를 怨望(원망)ᄒᆞ리.

> 열다섯 열여섯 살을 겨우 지나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저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평 생을 약속하였더니, 세월이 빨리 지나고 조물주마저 다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물, 곧 세월이 베틀의 베올 사이에 북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가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 어디 두고 모습이 밉게도 되었구나.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알거니와 어느 님이 사랑할 것인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 ☞ 늙고 외로운 신세 자탄

三三五五 冶遊園(야유원)의 ①<u>새 사람</u>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 업시 나가 잇어, 白馬金鞭(백마금편)으로 어ᄃᆡ어ᄃᆡ 머무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랴.

> 여러 사람이 떼지어 다니는 술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없이 나가서 호사스러운 행장을 하고 어디어디 머물러 노는고? 집안에만 있어서 원근 지리를 모르는데 님의 소식이야 더욱 알 수 있으랴. ☞남편에 대한 원망

因緣(인연)을 긋쳐신들 싱각이야 업슬소냐. 얼골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믄, 열 두 째 김도 길샤 설흔 날 支離(지리)ᄒᆞ다. 玉窓(옥창)에 심ᄀᆞᆫ 梅花(매화) 몃 번이나 픠여진고.『겨울밤 차고 찬 제 자최눈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ᄌᆞᆫ 비ᄂᆞᆫ 므스 일고. 三春花柳(삼춘화류) 好時節(호시절)의 景物(경물)이 시름업다.

가을 돌 방에 들고 (蟋蟀)실솔이 床(상)에 울 제, 긴 한숨 디ᄂᆞᆫ 눈물 속절업시 헴만 만타.』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겉으로는 인연을 끊었다지만 님에 대한 생각이야 없을 것인가? 님의 얼굴을 못 보거니 그립기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한 달 곧 서른 날이 지리하다. 규방 앞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고? 겨울 밤 차고 찬 때 자국 눈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궂은 비는 무슨 일인고? 봄날 온갖 꽃 피고 버들잎이 돋아나는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다. 가을 달 방에 들이 비추고 귀뚜라미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흘리는 눈물 헛되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계절 변화에 따른 임에 대한 그리움

【도로혀 풀쳐 혜니 이리 ᄒᆞ여 어이ᄒᆞ리】, 靑燈을 돌라 노코 錄綺琴(녹기금) 빗기 앉아,
碧蓮花(벽련화) 한 곡조를 시름 조ᄎᆞ 섯거 타니, 瀟湘夜雨(소상야우)의 댓소리 섯도ᄂᆞᆫ ᄃᆞᆺ
華表千年(화표천년)의 別鶴(별학)이 우니ᄂᆞᆫ ᄃᆞᆺ,
玉手(옥수)의 타는 手段(수단) ②녯 소래 잇다마ᄂᆞᆫ, 芙蓉帳(부용장) 寂寞(적막)ᄒᆞ니
뉘 귀에 들리소니. 肝腸(간장)이 九曲되야 구븨구븨 ᄭᅳᆫ쳐 서라.

돌이켜 여러가지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등불을 돌려 놓고 푸른 거문고를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곡을 시름에 싸여 타니, 소상강 밤비에 댓잎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망주석에 천 년만에 찾아 온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 가락이 아직 남아 있지마는 연꽃 무늬가 있는 휘장을 친 방이 텅 비었으니 누구의 귀에 들릴 것인가? 마음 속이 굽이굽이 끊어졌도다.

ᄎᆞᆯᄒᆞ리 잠을 드러 ᄭᅮᆷ의나 보려 ᄒᆞ니 바람의 디ᄂᆞᆫ 닢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ᄭᅢ오ᄂᆞᆫ다. 천상의 牽牛織女(견우직녀) 銀河水(은하수) 막혀서도, 七月 七夕 一年一度 失期(실기)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弱水(약수) 가렷관ᄃᆡ, 오거나 가거나 消息조차 ᄭᅳᆫ쳣는고. 欄干(난간)의 비겨 셔서 님 가신 ᄃᆡ 바라 보니, 草露(초로)ᄂᆞᆫ 맷쳐 잇고 暮雲(모운)이 디나갈 제 竹林 푸른 고ᄃᆡ 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룬 사람 수업다 하려니와
薄命(박명)ᄒᆞᆫ 紅顔(홍안)이야 날 가ᄐᆞ니 ᄯᅩ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ᄒᆞ여라.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님을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벌레는 무슨 일이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고? 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을지라도 칠월 칠석 일년에 한 번 씩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 님 가신 후는 무

슨 장애물이 가리었기에 오고 가는 소식마저 그쳤는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풀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대 수풀 우거진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설운 사람 많다고 하려니와 운명이 기구한 여자야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1.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현실의 상황에 안도하고 있다.(o,x)
2. '장안 유협 경박자'로 인해 마음 고생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o,x)
3. 비유적인 표현으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o,x)
4. 대조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o,x)
5. 풀 속에 우는 벌레는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소재이다.(o,x)
6. '모운'은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흥취로 전환하게 만드는 소재이다.(o,x)
7. 임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o,x)

(2) 덴동어미화전가

[중략된 부분의 내용]

부인들이 화전을 부쳐 먹고서 글을 외우거나 노래와 춤으로 즐기다가 어떤 젊은 과부가 개가(改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자신의 설움을 토로한다. 그러자 덴동 어미가 나서서 자신의 인생 역정을 토로한다. 덴동 어미는 순흥 읍내 임 이방의 딸로 태어나 같은 신분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나 신랑이 그네를 뛰다 떨어져 죽고 만다. 개가하여 역시 아전 신분의 이승발의 후처로 들어갔으나, 시집이 이포[吏逋, 구실아치가 공금을 집어쓴 빚]를 많이 지게 되자 그것을 갚느라고 재산을 다 날리게 된다 유랑하던 부부가 경주에서 군노(軍奴)가 경영하는 여각에서 안팎으로 담살이를 하며 누만금을 저축하였으나 괴질로 낭군이 죽고 빚은 준 사람들도 다 죽어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이어지는 부분은 덴동 어미가 다시 옹기장사를 하는 울산의 황 도령을 만나 그의 인생 역정을 듣는 부분이다.

[가]

여보시오 말씀 듣소 우리 사정을 논지컨대
삼십 넘은 노총각과 삼십 넘은 홀과부라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누라 신세도 가련하니
가련한 사람 서로 만나 같이 늙으면 어떠하오
가만히 솜솜 생각하니 먼저 얻은 두 낭군은
홍문(紅門)안의 사대부요 큰 부자의 세간
패가 망신하였으니 흥진비래 그러한가
저 총각의 말 들으니 육대 독자 내려오다가
죽을 목숨 살았으니 고진감래(苦盡甘來)할까 보다
마지못해 허락하고 손잡고서 이내 말이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 허물없이 살아 보세
영감은 사기 한 짐 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고
나는 사기 광우리 이고 가가호호에 도부한다
조석(朝夕)이면 밥을 빌어 한 그릇에 둘이 먹고
남촌북촌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도부하니
돈백이나 될 만하면 둘 중에 하나 병이 난다
병구려 약시세 하다 보면 남의 신세를 지고 나고
다시 다니며 근사 모아 또 돈백이 될 만하면
또 하나가 탈이 나서 한 푼 없이 다 쓰고 나네
도부 장사 한 십 년 하니 장바구니에 틀이 없고
모가지가 자라목 되고 발가락이 무지러졌네
산 밑에 주막의 주인하고 궂은비 실실 오는 날에
건너 동네 도부 가서 한 집 건너 두 집 가니
천둥소리 볶아치며 소나기비가 쏟아진다
주막 뒷산이 무너지며 주막 터를 빼 가지고
동해수(東海水)로 달아나니 살아날 이 누굴런고
건너다가 바라보니 망망대해뿐이로다
망측하고 기막힌다 이런 팔자 또 있는가
남해수(南海水)에 죽을 목숨 동해수에 죽는구나
그 주막에나 있었더면 같이 따라가 죽을 것을
먼저 괴질에 죽었더면 이런 일을 아니 볼걸
고대 죽을 걸 모르고서 천년만년 살자 하고
도부가 다 무엇인고 도부 광우리 무여 박고
해암 없이 앉았으니 억장이 무너져 기막힌다
죽었으면 좋겠구만 생한 목숨이 못 죽을네라
아니 먹고 굶어 죽으려 하니 그 집 댁네가 강권하니
죽지 말고 밥을 먹게 죽은들 시원할까
죽으면 쓸 데 있나 살기만은 못하리라
저승을 누가 가 봤는가 이승만은 못하리라
고생이라도 살고 보지 죽어지면 말이 없네

[나]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다 보소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찮고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맘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 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晃然大覺) 깨달아서
덴동 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네.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두고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우 춘풍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숱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촌간장 쌓인 근심 도화 유수로 씻어 볼까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실실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실실 녹네
자네 말은 봄 춘 자요 내 생각은 꽃 화 자라
봄 춘 자 만난 꽃 화 자요 꽃 화 자 만난 봄 춘 자라

1. 재가를 들면서 덴동어미의 상대방 신분이 점차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o,X)

2.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병으로 고생하는 덴동 어미의 모습이 덴동 어미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o,X)

3. 덴동어미가 셋째 남편을 잃고 좌절하면서 넷째 남편을 구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o,x)

4. 덴동어미는 자신의 발화를 통해 재가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o,x)

5. '청춘과부'가 겪은 남해수에서의 고생은 덴동어미의 발화에 긍정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o,x)

(3) 노처녀가

아무 사람 만나볼 때 헛웃음이 절로 나고
무안하여 돌아서면 긴 한숨이 절로 나네
웃지 말고 새침하면 남 보기에 매몰차고
불평 풀이 하자 하면 심술궂은 사람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팔자 또 있는가
이러하기 더 어렵고 저리하기 더 어렵다
아주 죽어 있자 함이 한두 번이 아니로다
목숨이 길었던지 무슨 낙을 보려던지
날이 가고 달이 가며 갈수록 서러운 심사
어찌하고 어찌하리 베개를 탁 던지고
입은 채로 드러누워 옷가슴을 활짝 열고
가슴을 두드리면 답답하고 답답하다
이 마음을 어찌할꼬 맺힌 마음 절로 난다
대체로 생각하면 내가 결단 못하랴
부모 동생 믿다가는 서방 볼 일 아득하다
오늘 밤이 어서 가고 내일 아침 돌아오며
중매 매파 불러다가 기운 조작으로
번듯하게 구혼하면 어찌 아니 못 되랴
이렇게 생각하니 없던 웃음 절로 난다
음식 먹고 체한 병에 정기산을 먹은 듯이
급히 앓은 곽란병에 청심환을 먹은 듯이
활짝 일어나 앉아 돌콩대를 입에 물고
고개를 끄덕이며 궁리하되
내 서방을 내 가리지 남더러 부탁ㄷ할까
내 어찌 미련하여 이 생각을 못 냈던고
만일 벌써 깨쳤으면 이 모양이 되었을까
마음 먹고 생각하니 아주 쉬운 일이로다.

1. 시적 화자는 현재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o,X)
2. 시적 화자는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회피하고 있다.(o,x)
3. 시적 화자가 구혼을 결정한 뒤, 너무 기쁜 나머지 먹었던 음식이 탈이나서 고생하는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o,x)
4. '베게'를 던지는 행위는 시적 화자를 바라보는 매파의 답답한 마음의 표출로 볼 수 있겠군.(o,x)

A6 기타

(1) 일동장유가 - a형은 현대어풀이!

일생을 살아감에 성품이 어설퍼서 입신 출세에는 뜻이 없네.

진사 정도의 청렴하다는 명망으로 만족하는데 놓은 벼슬은 해서 무엇하겠는가?

과거 공부에 필요한 도구를 모두 없애 버리고 자연 찾아 놀러 다니는 옷차림으로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명산대천을 다 본 후에,

음풍농월하며 금강 유역에서 은거하고 지냈는데,

서재에서 나와 세상 소식을 들으니

일본의 통치자 토쿠다과 이에시게가 죽고 우리나라에 친선 사절단을 청한다네.

이 때가 어느 때인고 하면 계미년(1763) 팔월 삼일이라.

경복궁에서 임금님께 하직하고 남대문으로 내달아서

관우의 사당 앞을 얼른 지나 전생서에 다다르니,

사신 일행을 전송하려고 만조 백관이 다 모였네.

곳곳마다 장막이 둘러쳐 있고 집집마다 안장을 얹은 말이 대기하고 있도다.

전후 좌우로 모여들어 인산인해가 되었으니

정 있는 친구들은 손 잡고 장도를 걱정하고

철모르는 소년들은 한없이 부러워하네.

석양이 거의 되니 하나하나 이별하고

출발 신호에 따라 차례로 떠날 때에,

절과 부월 앞을 인도하는 군관이 국서를 인도하고

비단으로 만든 양산과 순시 영기가 사신을 중심으로 모여 섰다.

나 역시 뒤를 따라 역마에 올라 타니,

때때옷을 입은 지로 나장이 깃을 꼿고 앞에 서고

마두서자가 부축하고 쌍두마를 잡았구나.

청파 역졸이 큰 소리로 외치는 권마성은 무슨 일인가?

아무리 말려도 정해진 의식이라고 굳이 하네.

수염이 허옇게 센 늙은 선비가 갑자기 사신 노릇함이

우습고 괴이하니 남 보기에 부끄럽다.
<중략>
배 안은 돌아보니 저마다 배멀미를 하여
똥물을 다 토하고 까무라쳐서 죽게 앓네.
다행하도다. 종사상은 태연히 앉았구나.
선실에 도로 돌아와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 가깝다고 사공이 말하거늘
다시 일어나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왜선 십여 척이 배를 끌려고 마중을 나왔네.
<중략>
점심 먹고 길 떠나서 이십 리를 겨우 가서
날이 저물고 큰비가 내리니 길이 끔찍하게 질어서
미끄러워 자주 쉬어야 하는지라.
가마 맨 다섯 놈이 서로 돌아가며 교대하되
갈 길이 전혀 없어서 둔덕에 가마를 놓고
한참 동안 머뭇거리면서 갈 뜻이 없는지라.
사방을 돌아보니 천지가 어둑어둑하고
일행들은 간 데 없고 등불은 꺼졌으니,
지척을 분간할 수 없고 넓고 넓은 들 가운데서
말이 통하지 않는 왜놈들만 의지하고 앉았으니,
오늘 밤의 이 상황은 몹시 외롭고 위태하다.
가마꾼이 달아나면서 낭패가 오죽할까.
그 놈들의 옷을 잡아 흔들어 뜻을 보이고
가마 속에 있던 음식을 갖가지로 내어 주니,
저희들끼리 지껄이며 먹은 후에 그제서야 가마를 메고
조금씩 나아가는데 곳곳에 가서 이러하니
만일 음식이 없었더라면 필연코 도주했을 것이다.
삼경쯤이나 되어서야 겨우 대원성에 들어가니
머리가 아프고 구토하여 밤새도록 몹시 앓았다.

1. 시적 화자의 발화를 통해 조선에서 통신사를 요청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o,x)

2. 시적 화자는 백수의 늙은 선비를 비판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o,X)

3. 가마 속에 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던 것은 왜놈들의 생김새에 대한 연민 때문이다.(o,x)

(2) 제망매가

생사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몯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1.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망매가>의 독특한 점은 시간 의식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사별의 시공간 및 재회의 시공간 제시, 현재, 과거, 미래가 제시되어있으며 이는 모든 존재의 과거와 미래에 해당하는 숙명의 문제를 제기하여 보편적 정서를 획득한다. 특히 먼저 죽은 누이를 늦게 죽을 월명사가 먼저 기다리겠다는 것은 더욱 심오한 종교적 시간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즉, 요절한 이는 윤회를 다시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저러한 맥락의 글이 나온 것이며 비록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누이의 극락왕생을 비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① 1행의 생사길은 사별의 시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② 5~6행은 7행에 함께 태어난 과거와는 달리 누이가 요절할 미래의 상황을 잘 드러내 주는군.
③ 8행은 가는 곳을 모르는 것은 비단 누이뿐만 아니라 헤어지게 될 모두의 숙명론적 미래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9행의 미타찰은 1행의 생사길과는 다른 재회의 시공간을 의미하는군.
⑤ 10행의 화자가 미타찰에서 먼저 누이를 기다리는 것은 요절하여 윤회 할 누이에 대한 화자의 극락 염원이라고 볼 수 있겠군.

2. 감탄사를 통하여 슬픔과 그에 따른 극복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o,x)

3. 시적 화자는 혈육의 죽음에서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o,x)

4.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적 주제를 비유 또는 상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o,x)

(답지와 해설)

A1- (1) x(흥취의 정서와 무관), o, o, x(대상이 의인화이지 사람이 의인화된 것은 아님)

- (2)X(풍상 자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태도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임), O, X(도리와 국화는 대비됩니다.), X(황국화는 임이 보낸 것임)

- (3) o(국화야), x(한천은 어려운 여건을 의미함), o(오상고절 등을 통해 확인), x(물아일체와 관련 없음)

-(4) 4(달리가 아니라, 둘 다 시적 화자가 다름), 2(3수에 등장하는 누구는 조물주로서, <보기>의 2수에 등장하는 우리=백성과는 다른 존재임)

A2 - (1) x(까마귀가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은 아님), x(까마귀가 청강에 몸을 씻은 것이 아님), x(시어의 대비와 운율감은 관련이 없음), o(더럽히지 말라는 권유-정몽주의 어머니가 정몽주에게 쓴 시조)

(2) O(물고 뜯는 고약한 것들에 대한 공격적인 어투), X(당비루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물어 뜯는 벌레가 아니며, 당비루와 벌레의 심각한 정도를 비교하고 있을 뿐임), O(고전에서는 역거의 원리라고도 함), X(예찬적 태도와 관련 없음)

(3) X(연민이 아니라 비판과 풍자), O(마지막 종장은 1인칭으로, 초중장은 3인칭으로), O(골계는 해학 혹은 풍자이므로 적절함), x(백송골이 파리를 괴롭히는 존재는 아님)

A3- (1) o, o, x(약간 애매한 선지이므로 지워지실 바랍니다.), x(산촌은 현재 화자가 위치한 장소일 뿐)

(2) x(분별은 여기서 시름과 걱정임), x(말, 태는 부정적인 가치), o, o

(3) 5(달리가 아님), 4(구름, 바람은 가변적 존재로 친화적 대상이 아님)

(4) O, X(각 장이 아님), O, O, X(인간은 속세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이 아님), X(물외는 탈속적 자연임)

(5) O, O, O, X(장무는 황폐함을 드러냅니다.)

(6) x(자연과 맺은 기약), x(화자가 현재 강호에 머무는 것이 아님), x(강호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닙니다.)

a4-(1) o, x(자책은 아님), x(예기치 못하였는지 알 길이 없음), o, x(확신적 어조가 아님)

(2) o(난 신의를 지켰는데 넌 왜 이러냐는 식의 원망이 있음), x(희망적 어조 아님), x(임이 오는 것이 아님), x (속인 적이 없다고 말함)

(3) x(잠을 못자니 꿈을 꿀 리가), o, x(임이 나에게), o

(4) x(바람은 과거 환기의 기능이 아니다. 착각하게 하는 소재일 뿐이다.), x(시적 화자로 하여금 임을), o, x(자책, 성찰은 드러나지 않음)

(5) x(3연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o(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헤어지자는 말은 역설적으로 헤어지지 말자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O(답이 O입니다. 수정요망), x(바위는 시련 자체임)

a5-(1) x(안도가 아님), o, o, o, x(위안이 아님) x(흥취가 아님), o

(2) o, o, x(넷째 남편을 구하지는 않음), x(재가 반대임을 추론할 수 있음), x(남해수에서 고생한 것은 청춘 과부가 아니라, 덴동 어미의 셋째 남편일 거라고 추측 가능)

(3) x(외모 불만족), x(적극적임), x(비유일 뿐입니다.), x(매파의 답답함이 아님)

a6

(1) x(일본이 요청), x(화자가 백수의 늙은 선비 자신임), x(생김새가 원인이 아님)

(2) 2(누이가 요절한 것이 가까운 과거임), o, ㅇ, ㅇ